

NEWS

해외 및 북한 의료 선교사업 대북 TFT 회의 개최

해외 및 북한 의료선교 사업 대북 의료 지원 TFT 회의가 2008년 7월 7일 오후 2시부터 가톨릭중앙의료원 의과학연구원 1026호에서 열렸다. 최영식 회장 신부를 비롯한 정수교 팀장(가톨릭의료협회 사무총장) 외 팀원 7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대북 의료 지원 사업의 전반적 진행 방향과 다른 대북 지원 단체들과의 협동 사업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또한 대북의료지원 TFT의 자문위원으로 북한 경제 전문가인 통일연구원 임강택 박사를 선임하였다.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치료 중인 앵호토야

2008년 4월, 한국가톨릭의료협회(회장 최영식)의 해외 의료선교단(김영훈 단장, 최환석 부단장, 박영혜 수녀 협회 사무국장)의 현지 답사팀은 몽골 문화과학부로부터 고관절 탈구로 장애아가 된 앵호토야(여, 3)의 치료를 의뢰받았다.

치료는 회원 병원인 의정부성모병원 정형외과 김석중 교수가 맡았다. 앵호토야는 5월 6일 한국에 도착하여 외래 진료 후 당일 입원하였다. 15일 선천성 우측 고관절 탈구에 대한 관혈적 정복 및 절골술, 금속내고정술을 시행하였고 27일, 22일간의 병실 생활을 끝내고 퇴원하였다. 퇴원 후 병원 부근에 방을 얻어 부모와 함께 생활하면서 정형외과 외래 진료를 받고 있고 7월 2일부터는 재활의학과 외래에서 약 4주간의 일정으로 물리치료를 하였고, 7월 16일 정형외과 외래 진료 시 석고를 제거하였다. 이후 한 달 간의 물리치료가 추가로 필요하여 8월 말까지 물리치료 후 몽골로 돌아갈 예정이며 향후 약 1년 후 고정된 금속을 제거하는 수술을 시술할 계획이다. 비자가 8월 2일로 만료되어 천주교 의정부이주노동자상담소의 도움으로 비자 연기를 신청하였다.

의정부성모병원에서는 입원 진료비 11,552,023원 전액을 지원하였고 외래 진료비 전액을 지원할 예정이며 6월 25일과 7월 31일 두 차례에 걸쳐 성모자선회 기금 100만원을 물리치료 받는 기간 동안의 생활비로 지원하였다.



한국가톨릭약사회 교수협의회 창립미사

한국가톨릭약사회(회장 이강추)는 전국 약학대학의 가톨릭 신자 교수들을 중심으로 교수협의회를 구성, 6월 13일 오후 4시부터 서울역 4층 대회의실에서 한국가톨릭의료협회 회장 최영식 신부 주례로 창립 미사를 봉헌하고 총회를 가졌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학계에서 활동하는 약대 교수 50여 명이 참석해 앞으로 생명 존중의

NEWS

복음 정신을 바탕으로 질병으로 고통 받는 이들을 돌보고 아픔을 나누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하고 이승기(요셉, 서울대 약대) 교수를 회장으로 선임했다. 아울러 '하느님의 부르심'에 대한 예수회 송봉모(서강대 교수) 신부의 강의를 듣고 전문 의료인으로서 하느님 부르심(소명)에 응답하는 길에 대해 묵상했다.

'평신도인 우리는 주님의 백성으로 세상 한복판에 파견된 자들이다. 그러므로 창조 때 하느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 세상을 관리하고 돌보아야 한다. 부르심을 받은 나의 자리에서... 지금 나의 일터에서...'

한국가톨릭약사회는 약국이나 병원·제약회사·대학·연구소 등에서 활동하는 가톨릭 신자 약사들 모임으로, 약사회 조직을 더욱 활성화하고 회원들 참여를 높이고자 직능별 협의체를 조직하기로 하고 그 첫 번째로 교수협의회를 창립했다. 현재 전국 약학대학의 300여 명 교수 중 가톨릭 신자는 약 60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가톨릭약사회 이강추 회장은 "앞으로 공직 약사, 개업 약사, 병원 약사, 산업 약사 등 직능별 협의회를 순차적으로 조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983년 6월 출발한 한국가톨릭약사회는 그동안 이주노동자를 위한 라파엘 클리닉과 자선병원인 성가복지병원을 비롯해 결핵환자 영양원인 시몬의 집 등 여러 사회복지시설에 의약품과 후원금을 지원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무료진료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북녘 어린이 결핵환자와 아프리카 난민들을 위한 의약품 및 재정 지원과 함께 한국가톨릭의료협회 회원기구로서 2006년부터 가톨릭 해외 의료선교단에 참여하여 해외 의료 봉사 활동을 펼쳐 왔으며 올해도 2008년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가톨릭 해외의료선교단의 일원으로 몽골의 의료 취약 지역인 다르항에 파견되어 임무를 성실히 마치고 돌아왔다.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 전국 가톨릭 간호대학생 피정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회장 김남초)는 2008년 7월 4일부터 5일까지 전국의 가톨릭 간호대학생 피정을 장충동의 성 베네딕도 수도원에서 개최하였다.

31명의 전국 가톨릭 남,녀 간호대학생들이 모여 "말아 용기를 내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마태 9,22)라는 주제로 박규식 암브로시오 신부님(의정부 청소년한마음수련원)의 진행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은주 마리헬렌 수녀님의 "먼저 하느님을 만나자"라는 내용으로 강의가 있었다. 강의 내용은 삶 안에 깊은 에너지가 있으며 내 힘으로만이 아닌 정성과 마음을 다하고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능력에 맡겨드리면서 성경을 늘 읽는 자세가 필요하다. 내 힘만으로 간호하려 하면 다칠 수가 있다. 간호사는 삶 안에 나를 사로잡는 그분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 성경과 함께 생활하고, 성경과 함께 자고, 성경과 함께 일하고, 환자를 돌보는 데도, 하느님과의 접촉은 PC를 켜지 않아도 된다. '침묵' 안에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는 요지였다.

